



일부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성교육 만족도 및 자가평가한 성지식도

Satisfaction with Sexuality Education and Self-Reported Sexuality-Related Knowledge among 10th Grade Students

저자 (Authors)	이미영, 김선경, 이무식 Mi-Young Lee, Sun-Kyung Kim, Moo-Sik Lee
출처 (Source)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2) , 2001.7, 229-238 (10 p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5(2) , 2001.7, 229-238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모자보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568956
APA Style	이미영, 김선경, 이무식 (2001). 일부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성교육 만족도 및 자가평가한 성지식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2), 229-238.
이용정보 (Accessed)	계명대학교 114.71.5.213 2016/07/05 14:5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일부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성교육 만족도 및 자가평가한 성지식도

이미영 · 김선경¹ · 이무식²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 지부¹,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²

= Abstract =

Satisfaction with Sexuality Education and Self-Reported Sexuality-Related Knowledge among 10th Grade Students

Mi-Young Lee, Sun-Kyung Kim¹, Moo-Sik Lee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Branch of Daegu Metropolitan City, Korea Association of Health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²*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sexuality-related knowledge and satisfaction with sexuality education in order to plan an effective sexuality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between May 1 and June 30, 1999. The study subjects were 492 10th grade students who visited a health examination center of a general hospital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in SPSS program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 About 63.4% of boys and 59.3% of girls reported tha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 sexuality education, and 75.3% of boys and 89.2% of girls reported the need of a sexuality education the reason for need of sexuality education was an accurate knowledge about sexuality in 61.3% of boys and 73% of girls. Students reported that they preferred a physician(31.2% of boys and 42.1% of girls) as a sexuality educator. In the self-reported knowledge about sexuality, students had poor knowledge abou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nd contraception. The most interesting item was a friendship with the opposite sex, followed by sexual activity(17.4% of boys) and child birth(14% of girl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effective sexuality education program is needed and the education should focus on sexual activity, contraception and child birth. The health care provider must facilitate open discussion with adolescent parents on sexuality and

교신저자 : 이미영(계명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전화번호 : 053-250-7541, 팩스번호 : 053-250-7494, e-mail: mylee@dsmc.or.kr)

Key words : sexuality education, self-reported sexuality-related knowledge

서론

청소년기는 소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기로서 급격한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정신·사회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성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인격 형성과 자아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차성징이 나타나고 생식기 고유의 발달과 생식 기능이 성숙되면서 동시에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와 이성에 대한 강한 성적 욕구가 발생되면서 성적 충동과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대한가정의학회, 1997).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성적 요구와 성충동은 인간 본능의 자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도덕과 질서 속에서는 폐되는 것이 보편적 상황이며, 청소년기가 지니고 있는 성충동과 관심, 그리고 성행동은 성인 사회에서 표면적으로도 부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과 좌절에 봉착하게 된다(Gordon, 1976).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성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고 성해방의 풍조가 유입되면서 성에 대한 보수적인 공식규범과 실제 관행 사이의 간격이 커지고 있으며, 세대와 개인간의 성의식의 수위도 다양해지고 있다(이숙경, 1993).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나 기성세대들은 보수적이며 그들이 경험한 가치체계를 요구할 뿐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성에 대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여(한성현과 박민향, 1996) 청소년들은 남녀차별적인 성규범과 실제로 경험하는 개방된 세계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증가하는 청소년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차은석, 1998).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꺼리고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정규화되지 못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미경, 1997; 한국여성민우회, 1996). 청소년들은 먼저 정확한 성지식을 가지고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성정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한 성탈선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역할에 대한 이해, 이성과의 성숙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인 성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Gordon, 1976).

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학교성교육이 시도된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학교성교육의 실태조사(김영희, 1993; 고진배, 1997; 김선희, 1998), 성교육의 필요성(조정숙, 1981; 문영희, 1994; 배영희, 1999), 성지식의 평가 및 만족도(김명, 1980; 성영자, 1984; 차은석, 1998), 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최혜영, 1999; 김성애, 2000),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연구(이중범, 1993; 김미경, 1997; 김정옥, 1999) 등 다방면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의 효과 및 성행위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연구가 시도되고 있다(이부식 등, 2000). 그런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현실적 필요성, 느낌, 경험과 관련되어야 한다(Ketting과 Visser, 1994). 특히 교육적 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성교육은 성별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Wilson 등, 1997). 그래서 앞으로의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성교육 내용 중 가장 알기를 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체적 성장, 성적 성장 정도에 부합되는 성지식을 가

르쳐 올바른 성태도 및 성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교육자인 학생들 스스로의 성지식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자가평가한 성지식의 정도, 관심있는 성문제들을 파악하여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9년 5월부터 6월까지 대구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등학생 신체검사를 실시한 인문계 남녀 고등학교 2개교의 신입생 502명에게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나누어주어 자기기입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들 중 응답이 불성실한 학생들을 제외한 49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은 기존의 연구(김명, 1980; 이영주, 1985)를 토대로 자체 개발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4문항으로서 성교육의 필요성 유무와 그 이유, 가장 원하는 교육의 주체, 기존의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각각의 이유, 관심이 많은 성문제와 성지식의 정도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었

다. 자료 처리에는 SPSS versio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남녀간 비교에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성 적

1. 성교육의 필요성

남녀 고등학생 492명 중 남학생은 75.3%, 여학생은 89.2%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 모르겠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는 남학생 24.7%, 여학생이 10.8%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학생 중 필요한 이유로 남학생의 61.9%, 여학생의 73%가 올바른 성지식 제공과 가치관 정립을 그 이유로 선택하였고, 성적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남학생 18.6%, 여학생 18.1%로 비슷하였으나 성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학생 17.6%, 여학생 5.6%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이유로는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되므로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오히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도덕적으로 좋지 않기에, 수업

표 1. 성별에 따른 성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값	p값
필요하다	404 (82.1)	189 (75.3)	215 (89.2)	16.31	0.000
모르겠다	69 (14.0)	48 (19.1)	21 (8.7)		
필요하지 않다	19 (3.9)	14 (5.6)	5 (2.1)		
계	492 (100.0)	251 (100.0)	241 (100.0)		

표 2. 성별에 따른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서)

단위: 명(%)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값	p값
올바른 성지식 제공	274 (67.8)	117 (61.9)	157 (73.0)	15.06	0.002
성적 호기심의 해결	45 (11.1)	33 (17.5)	12 (5.6)		
성적 사고의 예방	74 (18.4)	35 (18.5)	39 (18.1)		
신체적 변화에 따른 두려움 해소	11 (2.7)	4 (2.1)	7 (3.3)		
계	404 (100.0)	189 (100.0)	215 (100.0)		

표 3. 성별에 따른 성교육이 불필요한 이유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서)

단위: 명(%)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값	p값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된다	13 (68.4)	10 (71.4)	3 (60.0)	0.01	0.929
기타	6 (31.6)	4 (28.6)	2 (40.0)		
합 계	19 (100.0)	14 (100.0)	5 (100.0)		

분위기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는 순이었다(표 1, 표 2, 표 3).

2. 성교육 제공자에 대한 의견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성교육 제공의 주체로는 누가 적합한가라는 질문에서 남학생들은 대중매체(35.6%), 학교 선생님(17.0%), 부모님(16.2%), 의료인(31.2%) 순으로 답하였으며 여학생들은 의료인(41.5%), 부모님(22.3%), 대중매체(21.9%), 선생님(13%) 순이었으며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표 4).

3. 성교육의 만족도

성교육의 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하다가 남학생의 64.5%, 여학생의 55.1%였고, 만족한다는 남학생

5.2%, 여학생 6.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은 내용이 너무 예절에 치중되어 있다가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용이 너무 피상적, 자료의 불충분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은 62.2%가 내용이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이 내용이 너무 예절에 치중되어 있다가 32.2%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남녀간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주었다($p < 0.05$)(표 5, 표 6, 표 7).

4. 자가평가 성지식도

각 문항별로 스스로 생각하는 성지식의 정도를 "잘 안다", "조금 안다", "모른다"로 기입하게 하였을 때 남학생의 경우에는 "잘 안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문항은 정자(56.6%), 이차성징(58.2%), 몽정(55.8%),

표 4.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성교육자

단위: 명(%)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값	p값
교사	75 (15.2)	43 (17.1)	32 (13.3)	14.74	0.002
부모	96 (19.5)	41 (16.3)	55 (22.8)		
대중매체	143 (29.1)	89 (35.5)	54 (22.4)		
의료인	178 (36.2)	78 (31.1)	101 (41.5)		
계	492 (100.0)	251 (100.0)	241 (100.0)		

표 5. 성별에 따른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값	p값
만족한다	28 (5.7)	13 (5.2)	15 (6.2)	1.43	0.489
모르겠다	159 (32.3)	76 (30.3)	83 (34.5)		
만족하지 못한다	305 (62.0)	162 (64.5)	143 (59.3)		
계	492 (100.0)	251 (100.0)	241 (100.0)		

표 6. 성별에 따른 성교육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중에서)

단위: 명(%)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값	p값
체계적이다	5 (17.9)	4 (30.8)	1 (6.7)	3.60	0.165
신뢰할 수 있는 내용	13 (46.4)	4 (30.8)	9 (60.0)		
기타	10 (35.7)	5 (38.5)	5 (33.3)		
계	28 (100.0)	13 (100.0)	15 (100.0)		

표 7. 성별에 따른 성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서)

단위: 명(%)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값	p값
너무 피상적이다	131 (42.9)	42 (26.0)	89 (62.2)	59.69	0.000
너무 예절에 치중한다	103 (33.8)	57 (35.1)	46 (32.2)		
기타	71 (23.3)	63 (38.9)	8 (5.6)		
계	305 (100.0)	162 (100.0)	143 (100.0)		

표 8. 성별에 따른 자가평가 성지식도

단위: 명(%)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값	p값
정자					
모른다	32 (6.5)	7 (2.8)	25 (10.3)	23.42	0.000
조금 안다	227 (46.1)	102 (40.6)	125 (51.9)		
잘 안다	233 (47.4)	142 (56.6)	91 (37.8)		
난자					
모른다	60 (12.2)	39 (15.5)	21 (8.7)	6.77	0.034
조금 안다	234 (47.6)	121 (48.2)	113 (46.9)		
잘 안다	198 (40.2)	91 (36.3)	107 (44.3)		
월 경					
모른다	39 (7.9)	34 (13.5)	5 (2.1)	77.43	0.000
조금 안다	214 (43.5)	142 (56.6)	72 (29.9)		
잘 안다	239 (48.6)	75 (29.9)	164 (68.0)		
배란					
모른다	100 (20.3)	76 (30.3)	24 (10.0)	31.40	0.000
조금 안다	251 (51.0)	111 (44.2)	140 (58.0)		
잘 안다	141 (28.7)	64 (25.5)	77 (32.0)		
통정					
모른다	64 (13.0)	9 (3.6)	55 (22.8)	21.43	0.000
조금 안다	226 (45.9)	102 (40.6)	124 (51.5)		
잘 안다	202 (41.1)	140 (55.8)	62 (25.7)		
사정					
모른다	126 (25.6)	34 (13.6)	92 (38.2)	63.04	0.000
조금 안다	211 (42.9)	102 (40.6)	109 (45.2)		
잘 안다	155 (31.5)	115 (45.8)	40 (16.6)		

표 8.에서 계속

단위: 명(%)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값	p값
이차성징					
모른다	30 (6.1)	18 (7.2)	12 (5.0)	1. 22	0. 543
조금 안다	177 (36.0)	87 (34.6)	90 (37.3)		
잘 안다	285 (57.9)	146 (58.2)	139 (57.7)		
자위행위					
모른다	112 (22.8)	21 (8.4)	91 (37.8)	69. 16	0. 000
조금 안다	212 (43.1)	114 (45.4)	98 (40.7)		
잘 안다	168 (34.1)	116 (46.2)	52 (21.5)		
성교					
모른다	79 (16.0)	29 (11.6)	50 (20.7)	22. 30	0. 000
조금 안다	233 (47.4)	106 (42.2)	127 (52.7)		
잘 안다	180 (36.6)	116 (46.2)	64 (26.6)		
임신					
모른다	44 (8.9)	28 (11.2)	16 (6.6)	5. 08	0. 079
조금 안다	200 (40.7)	107 (42.6)	93 (39.6)		
잘 안다	248 (50.4)	116 (46.2)	132 (53.8)		
피임					
모른다	171 (34.8)	87 (34.7)	84 (34.9)	1. 64	0. 441
조금 안다	193 (39.2)	93 (37.0)	100 (41.5)		
잘 안다	128 (26.0)	71 (28.3)	57 (23.6)		
성병					
모른다	218 (44.3)	107 (42.6)	111 (46.1)	0. 59	0. 746
조금 안다	196 (39.8)	103 (41.1)	93 (38.6)		
잘 안다	78 (15.9)	41 (16.3)	37 (15.3)		
계	492 (100.0)	251 (100.0)	241 (100.0)		

자위(46.2%), 사정(46.2%), 성행위(46.2%), 임신(46.2%)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월경(68.0%), 이차성징(57.7%), 임신(53.8%)이었으며,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이 많은 문항은 남학생의 경우는 성병(42.6%), 피임(34.7%)이 가장 많았고 여학생 역시 성병(46.1%), 피임(34.9%)이 가장 많았다. 남녀간에 통계적 유의성($p < 0.05$)을 나타내는 문항은 정자, 난자, 월경, 배란, 몽정, 사정, 수정란, 자위, 성교 등의 문항이었다(표 8).

표 9. 성별에 따른 관심있는 성문제

단위: 명(%)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연애, 친구관계	188(38.2)	107(42.8)	81(33.6)
성교	66(13.4)	44(17.5)	22(9.1)
출산	47(9.6)	13(5.1)	34(14.1)
남녀성기	33(6.7)	28(11.1)	5(2.1)
피임	31(6.3)	9(3.6)	22(9.1)
월경	17(3.5)	8(3.2)	9(3.8)
자위	14(2.8)	7(2.8)	7(2.9)
기타	96(19.5)	35(13.9)	62(25.3)
계	492(100.0)	251(100.0)	241(100.0)

5. 관심이 많은 성교육 주제

가장 고민거리이며 관심이 많은 성교육 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남학생은 이성교제(42.7%), 성행위(17.4%), 별관심이 없다(12.3%) 순이고 여학생은 이성교제(33.6%), 출산(14.1%) 순으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9).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 중 남학생 75.3%, 여학생 89.2%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남학생의 61.9%, 여학생의 73%가 올바른 성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었다. 또 현행 성교육이 만족스럽다고 대답한 학생은 남학생 5.2%, 여학생 6.2%에 불과하였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남학생은 내용이 너무 예절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한 학생이 35.1%였고, 여학생은 내용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62.2%였다. 이는 87%가 성교육이 필요하며 성교육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56%가 내용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대답한 정은경(1992)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여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 성교육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예절을 강조하여 학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새로운 성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성교육 전문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스스로가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으로 성교육을 담당하기에는 교육이 단편적이고 일회적일 수밖에 없고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신감만 키우게 할 것이다. 그래서 Hamilton(1989)은 성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선생님들의 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을 언급하며 정규 교육 과정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스스로 생각하는 성지식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혀 모른다"로 대답한 학생이 성별의 경우 남녀 각각 42.6%, 46.1%, 피임에 대하여 34.7%, 34.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조정숙(1981)의 연구에서도 가장 모르고 있는 성지식으로 피임 방법, 다음이 성병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보편화되고 친구나 선·후배, 대중매체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접하는 오늘날에도 청소년들의 성지식이 아직도 이 부분에서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성교육이 여학생 중심 그리고 성교육의 내용에서 임신, 낙태, 생식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되며(이무식 등, 2000), 차은석(1998)의 연구에서 여중생을 대상으로 가장 배우고 싶은 성교육의 신체적 성에 대한 내용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피임법이나 성병 및 AIDS 예방인 것으로 조사되어 피임과 성병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앞으로의 성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과 피임에 대한 무지가 10대 미혼모 발생의 큰 원인이 되며(Levin, 1995), 10대 여성의 성행위와 관련된 임신은 모자 보건 차원에서 모체 자신에게 미치는 성병이나 기타 합병증을 보다 많이 수반될 수 있기에(Anandolakhshmy와 Buchshee, 1993)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10대 여성들이 계획되지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는 교육과 학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는 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Wood 등, 1995), 일탈성행동의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효과적인 피임법 사용을 교육하여야 십대의 미혼모 발생 및 임신중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관심과 고민이 많은 성문제로는 남학생은 연애·교제(42.7%), 성행위(17.4%), 여학생은 연애·교제(33.6%), 별관심이 없다(25.6%) 순으로 대답하였는데 이는 남녀 모두 연애·교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한 정은경(199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남학생이 연애·교제 다음으로 성행위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차은석(1998)의 연구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잘못된 성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

은 물론 성 상대자인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이무식(2000)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낮은 지식도를 보여 성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고 왜곡된 성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는 남녀의 신체적 구조나 기능 등의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대한 적절한 지식의 제공과 더불어 각 개인의 성적 발달에 따른 적응을 돕고, 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책임 있는 성운리를 확립하도록 도우며 남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Benson과 Torpy, 1995).

가장 바람직한 성교육의 주체를 묻는 문항에서 여학생의 42.3%는 의료인을, 남학생의 35.5%는 대중매체 및 31.2%는 의료인을 선택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1993)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비디오에서 가장 많은 성지식을 얻고 여학생은 교사로부터 성지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의료인에게서 성지식을 얻고자 하는 비율이 컸다. Joffe 등(1988)은 청소년을 돌보는 의사들이 보건관련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십대 소녀들은 소아과 의사나 가정의, 부인과 의사, 가족계획의원 등과 같이 이용가능한 성관련 보건의료자원이 일부 있지만 십대 소년들은 이런 의료자원도 드물 뿐만 아니라 이 보건 의료자원을 이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십대 소년들은 십대 소녀들에 비해 의사들로부터 보건상담을 거의 받지 못한다(Joffe 등, 198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교육과 관련하여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상당수가 의료인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청소년들을 진료할 때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성문제를 논의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태도를 교육한다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무지로 인한 청소년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Kirby(1989)는 성교육자는 성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을 선별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한계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의 제한, 성지식을 스스로 측정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성지식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녀 학생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관심이 많은 성문제는 이성교제 외에 성교, 출산과 같은 직접적인 성행위 및 그 결과에 관심이 많지만 이와 관련된 성병, 피임 등에 관해 학생들 스스로도 성지식이 미흡함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성행위와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차진료서 피임이나 성병과 같은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해 의료인의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일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존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자가 평가한 성지식의 정도, 관심있는 성문제를 파악하여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성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1999년 5, 6월에 걸쳐 대구시 종합병원의 신체검사를 위해 내원한 남녀 고등학교 신입생 4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학생의 64.5%, 여학생의 59.3%가 기존의 성교육에 불만족하였으나, 남학생의 75.3%, 여학생의 89.2%가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 이유로 성교육을 원한 남학생의 61.3%, 여학생의 73.0%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과 가치관 정립을 선택하였다. 성교육의 제공자로는 남학생의

31.2%, 여학생의 41.5%에서 의료인을 선호하였다. 자가평가한 성지식의 정도에서는 남·여학생 모두에서 '성병'과 '피임'을 가장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가장 관심있어 하는 주제로는 남·여학생 모두에서 이성교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피임, 임신 등 성적 활동과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있어야 하며, 일차진료시 피임이나 성병과 같은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논의와 상담에서 보건의료인의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김 명. 대도시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조사. 중양의학 1980;39:163-169
- 김미경. 중등학교 성교육 현황 및 성교육 담당교사들의 태도. 경북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선희. 초등학교 성교육 실태와 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성애. 고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영희.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용자.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윤진. 청소년 건강관리. 가정의학. 초판. 계축문화사, 1997;167-184
- 김정옥.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성태도와 성교육 요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고진배. 고등학교 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대한가정의학회. 가정의학. 초판. 계축문화사, 서울, 1997;167-184
- 문영희. 국민학교 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 논문, 1994
- 배영희.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서의 내용분석과 학생 성교육 요구도 조사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백선자. 고교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성영자.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이무식, 김은영, 천병철, 이석구, 전경희 등. 일부 고등학생에서 성적 활동의 위험요인 분석.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4(2):199-217
- 이숙경.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영주. 중학교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중범.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정은경.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차은석.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최혜영. 중학생의 건전한 성지식 및 태도형성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한국여성민우회. 학교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여성민우회, 서울, 1996
- 한성현, 박민향. 중소규모 산업장 미혼 근로여성의 성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1996;19(2):

175-205

Anandalakshmy PN, Buchshee K. Teenage pregnancy and its effect on maternal and child health a hospital experience. *Indian Journal of Medical Science* 1993;47 (10):8-11

Benson MD, Torpy Ey. Sexual behavior on junior-high school student. *Obstet Gynecol* 1995;85:279-284

Gordon DJ. Adolescent sexuality. 2nd ed. Williams and Wilkins, Baltimore, 1976; 142-155

Hamilton R. Evaluation of training effects on teacher attitudes and concerns prior to implementing a human sexuality-education program. *Journal of School Health* 1989 ;59(4):156-160

Joffe A, Radius S, Gall M. Health counseling for adolescents: what they want, what they get, and who gives it. *Pediatrics* 1988;82 (3):481-485

Ketting E, Visser AP. Contraception on the

Netherlands: The low abortion rate explained.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1994;23:161-171

Kirby D. The effects of school sex education programs: A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Sch Health* 1989;59(4):156-160

Levinson RA. Reproductive and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self-efficacy and contraceptive behavior among teen age woman. *Adolescence* 1995;30(117):65-85

Wilson MD, Manoff S, Joffe A. Residents' self-assessed skills in providing sexuality-related care to teenagers. *Arch Pediatr Adolesc Med* 1997;151(4):418-422

Wood RG, Bloom D, Fellerath V. Encouraging school enrollment and attendance among teenage parents on welf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1995;17:277-307

Wertheimer N, Leeper E. Electrical wiring configurations and childhood cancer. *Am J Epidemiol* 1979;109:273-284